

-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-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아산시 입장

2024. 2. 19.(월)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천철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“철저히 소외된 아산시민, 누구를 위한 신년음악회인가?”에 대한 아산시 입장입니다.

- 천철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“철저히 소외된 아산시민, 누구를 위한 신년음악회인가?”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첫째, 천철호 의원은 “신년음악회 공연을 보는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. 그러나, 그곳엔 아산시민이 없었습니다. 바로, 라포엠 팬클럽 회원을 위한 음악회였기 때문입니다.”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.

시 입장

- 아산시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아산시민들에게 2024년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‘신년음악회’를 추진하면서 아산시민 우선 예매를 고민하였으나, 현재 아산문화재단의 예매시스템으로는 지역 제한이 불가하여 예매 시작 전 아산톡톡을 발송하여 아산시민들이 예매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. 또한 예매를 1인 2매로 제한하여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.
- 이번 공연을 통해 아산시를 알리는 관광 홍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으며 앞으로도 아산의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 시에서도 신년음악회의 경우 아산시민 ‘우선 예매’ 의견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, 아산시민이 우선 예매할 수 있도록 날짜를 달리 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.

- 둘째, 천철호 의원은 “일반에매 광주시도 시민 우선이었습니다. 국가유공자 우대, 어르신께 효도, 무장애 도시 주장과 지원 정책 등 광주시에는 있었고 아산시에는 없습니다.”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.

시 입장

- 이번 신년음악회는 무료공연으로 추진하여 광주시처럼 대상별 할인제도가 없었지만, 아산시에서 2023년 유료공연으로 진행한 “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페스티벌 with 자라섬”에서는 아산시민을 위한 할인제도가 있었습니다. 아산시민인 만 19세 이하, 만 65세 이상, 장애인에게는 무료입장, 그 외 아산시민은 50% 할인율을 적용하여 광주시의 복지대상자 50%, 광주시민 10%보다 더 많은 할인을 적용한 바 있으며 향후 유료공연 추진시에도 아산시민을 배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.
- 그동안 아산시는 문화예술 인프라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였고, 앞으로도 일상 속 문화권 향유 확대로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※ 5분 자유발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부서	문화예술과	과 장	김선옥(041-540-2530)
		문화정책팀장	최경화(041-540-2820)